

1989년도 미국 최우수도서

「뉴욕 타임스 북 리뷰」가 뽑은 13권의 책

「뉴욕 타임스 북 리뷰」는 1989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미국내에서 출간된 각종 신간도서 가운데 13권의 '최우수도서'를 뽑아 발표했다. 소설부문에서는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두번째 소설 「푸코의 추」와 전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셀먼 루시디의 「악마의 시」 등 6권의 작품이 올랐고, 미소설부문에는 프랑스혁명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시민들」을 비롯한 7권이 뽑혔다. 소설과 역사, 전기, 다큐멘터리 등이 고루 포함돼 있는 89년도 「미국최우수도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빌리 배스게이트

Billy Bathgate / E.L 닥터로

15세 소년의 아슬아슬하고 모험에 가득찬 성인기로의 도정을 그린 소설. 주인공 빌리가 1930년대 뉴욕시의 브루크스에서 당시 전설적 인물로 알려진 갱 더치 슬츨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가의 체험이 구체화된 것으로 강렬하고 생생한 문체가 감동을 남겨주는 작품으로 꼽힌다.

시민들

Citizens / 시몬 샤머

프랑스혁명의 역사를 서술한 책. 저자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처음 몇년간에 대한 이제까지의 편견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즉 앙시앵 레짐은 반동적이 아니라 진보적이었고, 프랑스혁명이 신성시됨에 따라 혁명에 의한 살인행위가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개인의 삶은 모두 짓밟히게 됐다고 비난한다. 결국 1789년 혁명의 격렬했던 자유의 감동은 단지 높은 사망자수로 채워진 1793년의 공포정치시대를 낳게 했을 뿐이라는 것. 논의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에도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가장 정통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Federico Garcia Lorca / 아이언 김슨

스페인의 시인이며 극작가로서 스페인 내전 최대의 희생자로 지목되곤 하는 로르카(1899~1936)의 생애를 담은 전기. 연극에 대한 천재적 재능을 보여 시적 감수성과 음악, 조형 미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던 로르카는 내란 직후 사살되고 만다. 저자는 그의 생애를 종교적 신념, 사회적 관심사에 맞춰 기술함으로써 로르카의 깊숙한 내부에서 스페

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읽어내고 있다.

푸코의 추

Foucault's Pendulum

움베르토 에코 / 윌리엄 웨버 역

이탈리아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소설.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작품배경으로 세명의 젊은 출판인들이 중세시대 이래 유럽에서 번성해온 갖가지 秘敎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기묘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중세의 프리메이슨, 템플기사단, 장미십자회의 비밀결사 등을 비롯한 비밀스런 사상과 의식을 파헤치면서 작가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온갖 비교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작품 역시 해박한 지식과 정보, 블랙유머, 지적인 농담 등이 자유자재로 구사되어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From Beirut To Jerusalem / 토마스 L. 프리드만

풀리처상을 두번이나 수상했던 저자가 1979년부터 1988년에 걸쳐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취재, 그 내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전장의 아수라장 속에서 죽음을 항상 동반하는 기괴한 에피소드들을 찾아내 예리한 유머감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마비 상황에 대해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해롤드 맥밀런

Harold Macmillan / 엘리스테어 혼

영국의 정치가로서 보수당원으로 이든(Eden) 내각의 재무장관과 수상을 지내기도 했던 맥밀런(1894~1986)의 일대기. 이 전기는 특히 맥밀런의 내향적인 성품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자는 그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면면과 2차대전 때 탁월한 외교수단을 보였던 면모를 능숙하게 추적한다. 92년의 일생 대부분을 권력의 핵심부에서 지냈던 맥밀런의 생애를 통해 세계를 변모시킨 한 세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How War Came / 도널드 카메론 와트

1938년 뮌헨회담에서 1939년 히틀러의 폴란

드 침공까지 11개월동안의 유럽외교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책. 저자는 영국의 우유부단함, 프랑스의 애매모호한 태도, 소련의 의구심과 이탈리아의 자만, 미국의 불간섭주의와 동유럽국들의 자국중심주의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히틀러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강물이 위스키라면

If The River Was Whiskey / T. 코라게산 보일

작가의 3번째 단편집. 뛰어난 언어적 재치와 학문적 박식이 돋보이는 작품들로서 가공할 공포와 어리석은 탐욕,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무감각성을 신랄하게 풍자해내고 있다. 한 소년과 알콜중독자인 아버지의 고통을 그린 표제작을 비롯해서 사랑과 속죄의 크나큰 위력을 유연하게 엮은 작품들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평화의 종식을 위한 평화

A Peace To End All Peace / 데이빗 프롬킨

중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수없이 있어 왔지만 이 책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계반사항을 설득력 있게 잘 요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차대전 전이 일어날 즈음의 오트만제국의 붕괴와 서방세력 및 소련, 그리고 중동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했다.

낮이 남긴 흔적

The Remains Of The Day / 가즈오 이시구로

일본계 영국인작가의 작품으로 인간과 계층, 문화에 대해 비감하면서도 섬세한 묘사가 독특한 코메디소설. 아주 엄격한 집사가 나레이터로 설정되어 잔뜩 비꼬는 투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하나하나 밝혀낸다. 집사가 말하는 저변에는 자신의 묻어둔 생애에 대한 아주 냉담한 관찰이 숨어있으며, 그것은 또한 당시(1956) 영국사회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는 고도의 비의도적 풍자수법이 깔려 있다. 작가는 애정과 연민, 깊은 이해심으로 집사의 입을 통해 영국과 영국의 정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의 시

The Santanic Verses / 셀먼 루시디

발표되자마자 회교권국가들의 거센 반발로 전세계적인 화제를 몰아왔던 작품이다. 테러리

스트들에 의해 납치된 여객기가 영국의 외딴 해안에 추락하여, 비행기에 타고 있던 두 사람만이 생존하는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들이 머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꿈과 환상, 선과 악,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이슬람교 경전과 현대문학, 소설 속의 또다른 소설 등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전개가 연속된다. 대담한 상상력, 조이스적인 언어구사로 '천재적인 이야기꾼'이라 평가받고 있는 셀먼 루시디는 이 작품에서 난해한 리얼리즘을 마음껏 펼쳐보이고 있다.

솔

The Shawl / 신시아 오지크

이 여성작가의 예술성은 정신세계에 대한 번득이는 통찰력과 기지,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치밀한 사건전개로 혼돈상황을 수습해주는 데 있다. 2편의 작품이 담긴 이 소설집에서 작가는 나치집단수용소에서 감시인들에게 어린 딸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한 여인의 이야기와 죽은 아기의 솔을 평생 간직해온, 이젠 망령기마저 보이는 늙은 여인의 모성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그려내고 있다.

10 1/2 장 속의 세계사

A History Of The World in 10 1/2 Chapters / 줄리언 반스

개성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 줄리언 반스의 5번째 작품집. 소설이라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 에세이를 모아놓았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여행이라는 모티프와 관련이 깊다. 젊은 여자가 핵전쟁으로 초토화된 육지를 떠나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영화배우가 베네주엘라에 있는 강을 따라 불운했던 한 선교사의 행적을 뒤쫓는다. 또 우주비행사가 우주공간에서 신을 만난 후 지구로 돌아와 노아의 방주 유물을 발견한다는 등등. 다분히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를 연상케 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현실'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나간다. <김지원>